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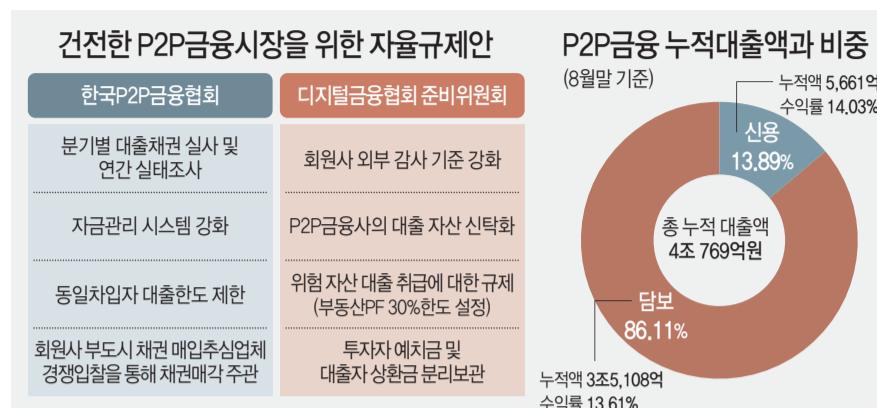
무섭게 크는 P2P대출…‘건전성 제고’ 자율규제案 잔걸음

P2P 대출액 급증… 4.7조원 돌파
지난해 누적대출액 대비 3배 증가
투자자 보호 등 포함한 규제 선봬
각종 사건으로 하락한 신뢰 제고

무법지대 P2P(개인간 거래) 금융시장이 누적대출액 4조원을 넘어서며 급성장하자 협회들이 줄지어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벌어진 P2P업체의 횡령·사기사건 등으로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율규제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 것. 투자자보호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P2P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모양새다.

17일 크라우드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 P2P금융 총 누적 대출액은 4조 769억원으로 지난 7월(3조8793억 원)에 비해 2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누적대출액(1조6743억원)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크라우드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누적대출액이



4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에 발맞춰 협회들도 P2P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잇단 횡령·사기사건 등으로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

지난 9일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는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안으로 P2P업체가 파산하거나 운영이 어렵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반면 ‘투자자 예치금·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신탁화는 투자자의 예치금과 대출자의 상환금 보호를 확대해 P2P업체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금융당국 제시한 가이드라인,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에서 확장해 대출

자의 상환금까지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안이다.

특히 준비위원회는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을 그대로 담아 강력한 자율규제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P2P 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하는데 이어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업수 등 회원사 가입·자격유지 조건도 강력하게 내세운 것.

디지털 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인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P2P금융협회가 회원사를 위해 내놓은 자율규제안은 구체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P2P금융협회는 지난달 자율규제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동의를 거친 후 ▲분기별 대출채권 실

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 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채권매각을 주관하는 방안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았다.

자율규제안과 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차입자 리스크와 플랫폼 리스크의 연계를 통제해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에도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P2P금융협회 전지선 부회장은 “중금리 대출이라는 P2P금융 본연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건전한 업체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명확한 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P2P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1차적으로 사기,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하반기 전체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자산관리 어벤져스’ 이끄는 리더…“팀워크가 만든 고품격 자문”



NH농협은행

추석 기간 ‘안심서비스’

NH농협은행은 추석 연휴를 맞아 ‘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업점 휴무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고객의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해준다.

안심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인근 영업점에 방문해 대여금과 보유 여부와 보호예수 절차 등을 사전에 문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전국 202개 영업점에서 대여금과 운용 중이며, 연휴 안심서비스 실시 기간 동안에는 이용수수료가 면제된다.

/안상미 기자

나는 뱅커다

② 김정도 국민銀 WM투자자문부장

‘WM스타자문단’ 연간 2790건 상담
법인고객까지 서비스 영역 넓히고파
올 실적 목표의 1.5배 달성 무난할 듯



지난 17일 만난 KB국민은행 김정도 WM투자자문부장은 34명으로 구성된 스타자문단을 이끌고 있는 리더다.

건 정도의 고객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금융권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플랫폼 강화 등 디지털 전환의 거센 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는 고품격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는 여전하다.

김 부장은 “은행 부자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고액자산가는 대면채널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고액자산가는 법률자문, 세무, 기업승계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의를 자문받기 위해 전문가와 직접 대면한다. 특히 고객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전문가와 마주앉아 원하는 물건을 찾고, 심층 분석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이 꿈꾸는 WM투자자문의 영역은 개인고객뿐만 아니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넓게 제공하는 것이다.

김 부장은 “WM의 프라이빗뱅크(PB)가 고액자산가의 개인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많다. 만약 PB가 투자자문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고객의 기업을 법인영업(RM)팀에 소개해 협업을 하면 투자자문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는 부동산 투자자문 영역에서 작년 실적의 2배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8월 말 기준 목표의 85.5%를 달성했다. 김 부장은 올해 말까지 150%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자신이 영업지점장 시절 지점의 은행원들과 의기투합해 900등대에 머물던 KB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을 200등대까지 끌어올렸던 성과를 회고하며, 조직 리더의 덕목으로 팀원간의 소통과 협동을 꼽았다.

그는 “우리는 고객을 위한 고품격 투자자문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선 스타자문단의 구성원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이들은 본인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팀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한 팀워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KEB하나은행, 해운항만산업 재건 돋는다

해양진흥공과 선박금융 지원 MOU

KEB하나은행은 17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TOP5로 도약하는 해운강국 코리아’ 재건을 위한 ‘선박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금융 상담 및 공사에 보증 신청을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사는 은행에 금융을 신청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함영주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KEB하나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대한 공의적 금융지원은 물론 양사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17일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해양진흥공사 본사에서 ‘글로벌 TOP5로 도약하는 해운강국 코리아’ 재건을 위한 ‘선박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가 보유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교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KB금융, 청소년 맞춤 금융 패키지 첫 선

4개 계열사 합친 ‘KB 영 유쓰패키지’
통장·적금·체크카드·보험 등 구성

KB금융그룹은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솔루션인 ‘KB 영 유쓰(Young Youth)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품 패키지에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KB생명보험 등 KB금융 4개 계열사의 상품이 담겨 있다.

패키지 상품은 ‘KB 영 유쓰 통장(어린이·청소년)’, ‘KB 영 유쓰 적금’, ‘KB국민 영 유쓰체크카드(20일 출시예정)’, ‘(무)KB 영 유쓰 자녀사랑건강보험(보장성)’, ‘KB 온국민 TDF 2050증권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C-Y클래스’, ‘KB 영 유쓰 증여예금’, ‘KB 금지옥업 신탁’,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KB금융은 지난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및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어린이·청소년 전용 상품인 ‘KB 영 유쓰 패키지’를 설계했다.

설문 조사에서 영 유쓰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하게 된 동기로는 ▲자녀의 경제적 미래 준비 ▲자녀에게 금융거래에 대해 알려주려고 ▲용돈 저축 통장 필요 등으로 조사됐다. 가입을 선호하는 상품은 적금, 보장성보험, 청약 통장, 정기예금 등의 순이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명절 맞이 ‘환전 이벤트’

우리은행은 추석을 맞아 다음달 19일 까지 ‘러블리주석, 달달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위비뱅크와 위비톡을 통해 환전하는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미화 100달러 상당 이상 환전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2매(100명), 립스 셀리드바이어용권(50명)을 제공한다.

또 영업점에서 미화 300달러 상당 이상 환전할 경우 주요통화(USD, JPY, EUR)는 70%, 기타통화는 30%의 우대 환율을 적용받는다.

/안상미 기자